

##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을 시작하면서

정의와 평화가 넘실거리고 사랑이 꽃피는 사회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새 천년기와 21세기의 원년을 지내고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는 이런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혁정책은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빚고 있고 정치인들의 과당적인 정쟁은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만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적 집단적 이기주의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는 가난한 서민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물결을 탄 신자유주의는 그렇지 않아도 물질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를 ‘돈만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배금만능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낙태와 살인, 자살 같은 반생명적 현상은 정도를 더해가고 있고, 생태계 파괴와 환경 훼손은 국토를 황폐화시켜 마실 물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가치관의 전도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양심과 도덕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 일그러진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비도덕적인 행태들을 바로잡아야 할 소명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통감하면서 무너져 내린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똑바로”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 운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똑바로 하여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자는 의식 계몽운동이자 생활 실천운동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사회는 제힘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존중받으며, 약한 사람들의 짐을 서로 저주고 억울한 사람들의 권리를 함께 찾아 주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의로 허리를 동이고 성실로 띠를 띠는’ 결연한 자세로 “똑바로”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 땅의 4백만 평신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나아가 뜻을 함께 하는 선의의 모든 국민도 마음을 합하고 생각을 모아 희망찬 내일을 열 수 있도록 ‘똑바로 운동’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운동에 임하는 우리의 다짐을 밝힙니다.

- 우리는 생각을 똑바로 하겠습니다. 올바르게 건설적이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도 나만큼 소중히 여기고,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동선을 앞세우면서 생각부터 똑바로 하겠습니다.

- 우리는 말을 똑바로 하겠습니다. 바르고 진실한 말, 책임있는 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은 즐겨 하고 잘못된 사랑으로 지적하면서도, 비난이나 험담은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행동을 똑바로 하겠습니다. 정직하고 떳떳한 행동,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먼저 배려하면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이미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로 살겠습니다.

2001년 9월 8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신 축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똑바로 운동은 이렇게 합니다

- 똑바로 운동은 생각(마음)을 똑바로 하는 데서 시작해 행동을 똑바로 하는 데로 이어집니다.
- 똑바로 운동은 남에게 강요하기보다는 나부터 시작하는 운동입니다.
- 똑바로 운동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정의의 실현과 공동선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 운동입니다.
- 똑바로 운동은 크고 힘든 일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 부터 시작하는 운동입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기, 서로 칭찬해주기, 쓰레기 분리 수거에 적극 참여하기, 지하철 등에서 차례 지키기, 휴지나 담배꽂초 함부로 버리지 않기 등과 같은 평범한 것부터 마음을 똑바로 하고 행동을 똑바로 합니다.)
- 똑바로 운동의 실천 사항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이면,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스스로 실천사항을 정해 실천할 수 있습니다.)
- 똑바로 운동은 일회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전개해 생활화하는 운동입니다.  
(한 가지 실천 사항을 정해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서 점검합니다. 점검표를 만들어 점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가정이나 모임 등에서는 실천사항을 구성원간에 서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교와 협동심을 다질 수 있고 서로에게 자극과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 기관이나 단체에서 똑바로 운동을 시작할 때는 자체 행사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하나씩 정해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똑바로 운동의 체험은 서로 계속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이나 단체 차원에서 서로 체험을 나누고 격려해 주십시오.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는 체험 사례 [수기] 발굴 등을 통해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 이 실천지침은 각 개인이나 단체에서 “똑바로” 운동을 실천할 때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똑바로’란?

### 1. 똑바로는 무슨 뜻인가

사전적 용어로 ‘똑바로’는

- (1) 어느 한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곧게 2) 틀리거나 거짓없이 사실대로’라는 뜻을 담고 있다(「표준 국

어 대사전」, 국립 국어연구원 간행, 1999년 초판). 한편 형용사인 ‘똑바르다’는 ‘1)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곧다 2) 올바르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올바르다’를 찾아 보면 ‘1) 말이나 생각, 행동 다위가 이치나 규범에서 벗어남이 없이 옳고 바르다 2) 똑바르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평협에서 전개하는 똑바로

(1) 바른, 곧은(直, straight forward) 2)올바른, 의로운(義, upright, righteous) 3)사실 그대로, 정직하게(眞, honest)’라는 뜻을 지닌다.

## 2. 왜 ‘똑바로’로 정했나

-‘똑바로’는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오는 말이다

짧고 간단하지만 어린이부터 어르신에게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똑바로’라는 표현은 강하고 힘이 있다.

지나치게 직설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수행해야 할 도덕성 회복의 과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똑바로’는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다

‘똑바로’는 어디에나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양심을 똑바로, 마음(생각)을 똑바로, 말을 똑바로, 행동을 똑바로...

운전을 똑바로, 칭찬을 똑바로, 비판을 똑바로, 기도를 똑바로...

치를 똑바로, 선거를 똑바로, 경제를 똑바로, 교육을 똑바로, 운동을 똑바로...

## 다함께 똑바로 운동을

찬미 예수님!

저는 ○○평협에서 ○○으로 있는 ○○○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전개하고 있는 똑바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2001년 가을부터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똑바로 운동이 무엇이길래 이 운동으로 도덕성을 회복한다는 말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의 생각을 똑바로 하고, 말을 똑바로 하고, 행동을 똑바로 함으로써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왜 우리는 생각을 똑바로 해야 하는가.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울곧은 마음을 지닌 사람, 울곧은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울곧은 말과 울곧은 행동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뚤어진 마음을 지닌 사람, 비뚤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비뚤어진 말과 비뚤어진 행동이 나오기 쉽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똑바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똑바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각을 똑바로 한다는 것은 올바르고 건설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소극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똑바로 한다는 것은 또한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웃을 함께 생각하고, 공동체의 선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을 살피고 반성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온 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똑바로 하는 데서 출발하는 똑바로 운동은 양심 성찰 운동이자 의식 계몽 운동입니다. 양심 성찰 운동인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양심에 비추어 성찰하고 반성하기 때문이고, 의식 계몽 운동인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잘못된 의식,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를 똑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왜 말을 똑바로 해야 하는가. ‘말 한 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처럼, 말을 잘 하면 엄청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잘 못하면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대단히 큼니다. 성서에서도 ‘입을 잘 놀리면 단 것을 실컷 먹고, 입술을 잘못 놀리면 쓴 것을 들이켜게 된다’(잠언 19. 20-21)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분쟁들, 사건들이 말로 인해서 빚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에서 남을 해치는 폭력이나 살인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똑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똑바로 한다는 것은 바르고 진실한 말, 책임 있는 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아부하지 않으면서도 잘못된 사랑으로 지적하고, 비난이나 험담은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바로 말을 똑바로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하는 것이 말을 똑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먼저 똑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말이 되기 십상입니다. 성서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은 바보스러운 말을 되풀이할 뿐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히 생각해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기 전에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생각 한다”(집회 21.25-26)고 하지 않습니까. 이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을 똑바로 하고, 말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셋째, 똑바로 운동은 생각과 말을 똑바로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동을 똑바로 하는 데로 나아갑니다. 똑바로 행동한다는 것은 정직하고 떳떳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이미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서서 자신을 드러내 세우지 않으며 약하고 임없는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똑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떨어졌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아무 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배부르게 먹어라’고 말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야고 2, 15-16) 또 요한 1서에서는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1요한 3.18)는 성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위선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마태, 23.3)고 가르치십니다.

이처럼 바른 생각과 바른 말은 우리의 바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은 양심성찰이나 의식계몽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 생활 속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생활실천운동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똑바로 운동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똑바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지만, 평협에서 도덕성 회복을 위해 똑바로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니 어떤 분들은 취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왜 하필이면 ‘똑바로’냐 똑바로가 도대체 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더군요. 그래서 이제 ‘똑바로’의 뜻에 대해서 정말로 똑바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똑바로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첫째)바르다 곧다(直, straight forward) 둘째)올바르다 의롭다(義, upright, righteous) 셋째) 정직하고 신실하다(信 honest)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아출판사 간행 ‘세 국 어사전’ 1994년판을 보면 부사로 ‘똑바로’는 “1)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곧게, 2)틀림없이 바르게”로 나와 있고 형용사 ‘똑바르다’는 “1)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곧다 2)사리에 벗어나지 않고 옳다. 올바르다”로 표현하고 있음)

따라서 똑바로라는 굽어진 것을 바로고 곧게 펴는 일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올바르게 가는 일, 의로움을 추구하는 일, 속마음에서부터 겉 행동까지가 정직하고 성실하며 꾸밈이 없는 태도나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성 회복을 위해 우리 평신도들이 펼치는 똑바로 운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도를 걸으며 의로움을 추구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똑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우리 사회 전체가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똑바로’라는 표현이 거부감이 든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어감이 너무 강하고 직설적이다, 둘째, 남에게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

실제로 “똑바로 해!” “이것도 똑바로 못하나!”는 표현에서 보듯이 똑바로 라는 말이 강하고 직설적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이런 표현상 억압적이고 강요하는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요. 더구나 “우리 이것 한번 똑바로 해 봅시다”하고 제의하면 곧장 “당신이나 똑바로 하시오”하는 핀잔을 듣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똑바로’라는 말에 거부감을 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나 똑바로 해!’가 아니라, ‘나부터 똑바로 하자’, 그리고 ‘우리 함께 똑바로 해 봅시다’하고 생각하고 또 말한다면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부터 시작해서 말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과연 얼마나 참으로 똑바로 할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나 자신이 똑바로 하지도 못하면서 똑바로만 외치면 뭐하나 하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조용히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낫지 사실은 똑바로 살지도 못하면서 또바로 스티커를 붙이고 똑바로를 외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에 붙이는 똑바로 스티커를 ‘나는 양심에 찢려서 못 붙인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완전하게 되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게 되려고 노력할 따름입니다. 완전하게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지금 열가지를 잘못하고 있는데 당장 열가지를 다 똑바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열 가지를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선은 열가지 중에서 똑바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홉가지로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줄여 나가는 노력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10가지 위반하던 것에서 똑바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후에 한 가지라도 위반하는 것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똑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첫 길입니다. 또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서는 남이 모르니까 그냥 슬쩍 위반해도 상관없지만 똑바로 스티커를 붙인 후에는 위반하려고 해도 양심이 찢립니다. 이런 각성이, 이런 노력이 똑바로 운동을 해 나가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강연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 똑바로 운동은 나 자신이,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제대로 살고 똑바로 살자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알고 보면 이 운동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알지만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 귀찮아서, 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 왜냐하면,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기 때문에-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똑바로 운동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을 똑바로 하고 말을 똑바로 하고 행동을 똑바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우리 자신이 지닌 한계 때문입니다. 사도 바오로도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소 길지만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입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서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결국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해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 속으로는 하느님의 율법을 받기지만 내 몸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 속에 있는 죄의 법의 종이 되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로마 8, 15-24)

그렇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맙시다. 용기를 냅시다. 왜냐하면 죄가 많은 곳에는 하느님의 은총도 더욱 풍부히 내렸고, 그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이런 육체의 약함을,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을 갖고 똑바로 운동에 함께 나섭시다.

다 함께 힘차게 구호를 외칩시다.

하나. 우리는 생각을 똑바로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말을 똑바로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행동을 똑바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공동체 모임용 똑바로 운동 자료

진행자 (참석자들을 따뜻이 맞이하고, 성호경을 바치면서 모임을 시작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하느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㉞ 삶의 이야기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해부터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운동은 우리의 생각을 똑바로 하고 말을 똑바로 하며 행동을 똑바로 함으로써 땅에 떨어진 도덕성을 회복하여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가꾸어 가자는 운동입니다.

진행자

아래 글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지난 2001년 9월8일 서울대교구를 시작으로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을 시작하면서 발표한 실천 선언문의 일부입니다. 어느 분이 아래의 글을 읽어 주십시오.

... 정부의 개혁 정책은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빚고 있고 정치인들의 과당정쟁은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만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적 집단적 이기주의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는 가난한 서민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질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를 ‘돈만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배급만능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낙태와 살인, 자살 같은 반생명적 현상은 정도를 더해 가고 있고, 생태계 파괴와 환경 훼손은 국토를 황폐화시켜 마실 물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비도덕적인 행태들을 바로잡아야 할 소명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통감하면서 무너져 내린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똑바로”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 운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똑바로 하여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자는 의식 계몽 운동이자 생활 실천 운동입니다.

진행자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한다)

1) 우리 사회에서, 또는 주위에서 벌어지는 비도덕적이고 일그러진 행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2)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비도덕적인 행태들을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은 먼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 ㉟ 하느님 말씀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디에 희망을 걸고 있는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진행자

어느 분이 이사야서 51, 4-8(야훼께서 정의로 구원을 이루신다)을 읽어 주십시오.(읽고 나면)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다음 성서 구절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세 번씩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 주십시오 (세 번 되풀이하여 읽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다)

“똑바로 나를 쳐다보아라”(3번)

“나의 법이 못 백성의 빛이 되리라”(3번)

“내가 세울 정의는 넘어지지 않는다”(3번)

“비방을 받더라도 낙담하지 말라”(3번)

진행자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한다)

1) 하느님 보시기에 나는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 똑바로 처신을 해서 욕설이나 비방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자세로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진행자

다음 성서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 봅시다.

우리는 대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구원의 희망으로 투구를 씌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 있든지 죽어 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 주십시오. (1 데살 5, 8-11)

##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교회는 세상 안에서의 교회의 사명과 평신도의 역할에 관하여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은 인간 구원을 그 목적으로 하며 모든 현세 질서의 개선도 포함한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총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뿐 아니라,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그 질서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교회의 이상을 수행하며, 교회와 세상 안에서, 영적 질서와 현세 질서 안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이행한다. 이 두 질서는 서로 구별되지만 하느님의 하나인 계획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신자이며 동시에 시민인 평신도는 이 두 질서 안에서 지속적으로 한 그리스도교 양심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평신도 사도직 교령 5항)

“평신도는 현세 질서의 개선을 고유 임무로 받아들이고, 그 질서 안에서 복음의 빛과 교회 정신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확고하게 바로 행동하여야 한다. 평신도는 시민으로서 전문 지식과 고유한 책임감을 지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며 어디서나 모든 일에서 하느님 나라의 정의를 찾아야 한다.”(평신도 사도직 교령 7항)

진행자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한다.)

1) 우리가 평신도로서 똑바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2)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내가 똑바로 해야 할 것 한 가지씩만 결심하여 서로 나누고 그대로 실천하도록 합시다.

진행자

자유 기도를 바치고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의 신학적 소고(小考)--- 곽승룡 신부(대전 교구 사목기획국장)

##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의 신학적 소고(小考)

### 1. 여는 말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 협의회는 지난 2001년 10월 27(토)-28(일) 대전교구 평신도 교육의 요람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도덕성?신뢰회복을 위한 ‘똑바로’(이하 '똑바로 운동')운동의 사각을 선포하고 전국 차원의 평신도의 시대적 운동이 닦을 올렸다. 필자는 이 운동이 단순한 대 사회적인 도덕성 회복운동을 넘어서서 교회를 아우르는 모든 신자들의 신앙적 성숙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바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운동의 신학적 의미를 소박하게 찾아봄으로써 한층 더 신앙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시대의 징표를 깨닫고 삶으로서 증명해 보이는 운동이 되기를 바란다.

### 2. 세례자 요한의 증거자 예언 운동

똑바로 운동의 성서적인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구약의 예언 운동을 말할 수 있고, 구약의 히브리 사상과 신약의 그리스도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옛 예언자이면서 새 예언자 세례자 요한의 세례운동이 바로 똑바로 운동의 영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세례자 요한 당시에 많고 다양한 세례운동이 있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로 개종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히브리인들을 위한 세례운동, 사해 연안에서 매일 반복되는 엄하고 이단적인 에세네파의 세례, 다른 종파 종교의 세례운동 등 당시의 사회 안에는 많은 운동들이 있었다. 마치 오늘 날 많은 시민 단체들의 사회운동과 흡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세례운동이 성령으로 주님께 의해 약속된 이름과 그 얼굴을 향해 가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실천한 것이다. 요한 자신의 세례만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백성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이였다.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똑바로 운동의 신학적 출발점은 바로 요한의 세례운동과 일치한다. 즉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한 세례를 준비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며, 세례를 위한 준비자세가 바로 “회개하라”는 것에서 그 동질성을 발견해야한다. 똑바로 운동은 회개운동이며 예수님과 성령으로 인한 세례 준비를 위한 예언자적 세례운동이다. 세례자 요한의 선포는 먼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3,2)이다. 요한의 회개는 구체적인 윤리적 죄에서 회개하라는 선포이다. 법과 질서 그리고 사회 공동선에서 위배된 모든 그릇됨에서 돌아서라는 선포이다. 죄를 끊고 돌아서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죄를 뉘우치고 끊어서 물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면 깨끗한 자로 정화된 자로 용서받는다는 것이 요한 회개의 세례운동이다. “독사 족속!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었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오.”(마태3,7-8)

요한의 회개와 세례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2000년 총선 때 시민 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과 같은 정신과 연관이 되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낙천?낙선운동은 옳지 않은 운동이라고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도 그 때의 낙천?낙선운동 자체는 불법이더라도 그 운동의 정신은 필요했다고 본다. 결국 총선 이후에 적지 않은 시민운동?단체와 지도자의 정치적, 개인적 어려움은 불법적인 운동의 형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당시 한층 더 바람직한 운동은 낙천?낙선운동이라는, 아주 개인적이고 국민의 판단까지 마치 해결해주는 운동이 아니라, 공천된 사람의 개관적인 정보만을 시민들에게 알렸다면 낙선시키는 이들의 주체가 국민이기 때문에 불법과 무관한, 아주 건전하면서도 성숙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운동이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 또한 그 시대의 환경과 성숙도의 결실이기도 하다.

똑바로 운동도 역시 개인적인 지시나 비판, 국민들 모두에게 위화감이 들 정도로 일방적이지 말았으면 한다. 법과 질서, 윤리 도덕적 질서를 파괴한 예를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것과 그러한 무질서 무법, 비윤리의 상황을 만들어 가는 구조를 고발하는 것은 요한의 세례 운동이지만 낙천?낙선운동과 같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국민들의 식별을 대신 내가 한다는 식의 운동이 아닌, 국민과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식별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알림 운동이어야 한다.

### 3.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나라 영성운동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와 행동, 죽음이 너무나 유사하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갈릴레아에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다가왔습니다.”(마태4,17) 그러나 예수님께서 촉구하시는 회개의 말씀은 그 내용 면에서 세례자 요한의 회개와 세례보다 훨씬 더 그 신학적 의미가 넓고 깊이가 있으며, 모든 이가 참여하는 현실적, 예언자적, 영성운동의 성격임을 나타내고 있다. 세례자 요한의 회개와 세례가 윤리적 죄와 법, 질서의 파괴에서 벗어나는 죄의 용서와 정화의 세례라면 예수님의 회개는 그것까지도 포함하지만, 윤리적 죄를 짓지 않는 죄 피하기 중심의 소극적 운동이 아니라 모든 이가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실천하는 회개 운동, 성령으로 인한 세례 운동임을 간파해야 한다. 사실 예수님의 회개는 죄인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을 온전히 찾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하느님 백성의 영성적 성숙 운동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 즉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준비하는 회개운동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회개운동은 하느님 나라 운동이며 영성운동이다. 사실 인간은 하느님 안에 살고 있음을 느끼고 깨달으며 기억할 때 사회의 죄, 윤리적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또한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회 질서와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예수님의 이러한 역사적 삶은 하느님 안에서 똑바로 살고자 하는 궁극적 구원의 선포 하느님 나라 운동이다. 역사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사회에서 소외 받은 실존과 버림 받은 실존을 향구히 찾아서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 주시고 그들을 하느님 나라에로 초대하셨다. 똑

바로 운동이 바로 궁극적 하느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 운동이어야 한다. 똑바로 운동은 세상에서 세례자 요한의 회개운동, 윤리적 차원의 개인적 정화와 사회적 차원의 법질서 도덕성 회복의 운동이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느님 안에 올바르게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신앙 고백의 영성운동이어야 한다.

#### 4. 맺는 말

한국 천주교 평신도 전국 협의회가 실천하고 있는 똑바로 운동이 기도하는 운동이 되길 바란다. 정의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언자적 자세로 선포하지만 무질서한 탓이 바로 당신 때문이라는 인상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고 실천한 사회 회개와 정화(세례)의 예언운동이 되도록 바란다. 동시에 똑바로 운동은 예수님을 닮아 하느님 나라 선포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의 쇄신과 회개를 시작으로 하는 영적 증거 운동이 되기를 바란다. 그럴 때 사회 예언적 정화 운동의 측면과 교회 안의 영성적 성숙의 회심 운동으로 거듭나 결국 사회와 교회 어디에서나 함께 느낄 수 있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신앙 고백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두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매일의 삶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지는 똑바로 운동이 되어야 한다. 똑바로 운동은 사회와 교회가 모두 자기 본질을 살아가는 자기 정체성 찾기 운동이다. 이는 교회 사람들부터 똑바로 올바른 삶과 정신으로 본보기를 보여 주어야 한다. 똑바로 운동은 이같이 사회와 교회에서 누가 어디서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의 본질을 제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복음 운동이길 바란다. 기도 안에서 우리 평신도 전체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회개와 세례 그리고 궁극적인 하느님 나라 운동을 똑바로 살아가는 증거자 운동이 되길 기대해본다.

### 평신도 사도직과 똑바로 운동--- 여규태 요셉(한국평협회장)

오늘 "평신도 사도직과 똑바로 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1. 이 주제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봅시다.

먼저 평신도 사도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자주 들어서 식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또한 평신도 사도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신도 사도직이란 바로 우리 평신도들이 수행해온, 수행하고 있는, 그리고 수행해야 할 사도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직이란 무엇입니까. 사도직이란 바로 사도로서 수행해야 할 직분, 직무입니다. 말하자면 사도로서 수행해야 하는 본분이요, 도리요, 책무라는 것이지요. 그럼 또 사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듯이 사도란 바로 파견된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누구로부터 파견된 사람인가요? 주님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열두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됐듯이, 주님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 파견된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파견된 사람입니다. 마르코 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고 분부하십니다. 사도란 이 분부를 수행하기 위해, 곧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로부터 파견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함께 생각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수행해야 할 사명을

지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가족과 직업과 고향을 모두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가족과 직업과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가족과 헤어지라는 조건으로, 직업을 떠나라는 조건으로, 고향을 떠나라는 조건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족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요청을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평신도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평신도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성직자나 수도자나 우리나라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하느님의 백성이며, 하느님을 믿는 신도들인데 왜 평범하다는 뜻을 지닌 ?평?자를 붙여서 성직자나 수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로 격하시키느냐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옳다 틀리다 하고 말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이 반드시 옳다는 게 아니라 한번쯤 생각해보자는 뜻에서입니다. 평신도란 평범한 삶 속에서 사도직을 실천하는 신자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이란 평상시의 삶, 일상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을 평신도라고 하고, 평신도가 사도로서 수행하는 직분 또는 직무를 평신도 사도직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열두 사도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가정과 직업과 고향을 떠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떠나겠다면 그것은 특별한 성소를 받은 것입니다. 성직자의 성소, 수도자의 성소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평신도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집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떠나는 대신에 바꾸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정을 잘 관리하고 보살피고 개선하라는 사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보살피고 개선하라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보살피고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을,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보살피고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를, 직장을, 나아가 우리 고향을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보살피고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평신도만이 할 수 있는 우리 평신도들의 고유한 사도직이고, 평신도 고유의 성소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신도들은 본래 현세적 일에 종사하며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함으로써 천국을 찾도록 불린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평신도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현세의 사물들을 비추어 주고 관리함으로써 모든 것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자라서 창조주와 구세주께 찬미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교회헌장 31항). 이것이 바로 평신도 사도직입니다.

## 2. 지금까지 평신도 사도직이 뭔가에 대해서 교회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똑바로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첫째, 왜 똑바로 운동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 평협에서는 똑바로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목을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이라고 붙였습니다만, 도덕성 회복이라는 게 좀 거창한 표현 같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평신도들이 해야 할 고유한 사명 곧 평신도 사도직을 똑바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고향을 하느님의 뜻대로 똑바로 관리하고 보살피고 개선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보았기에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을 주창한 것입니다.

둘째, 왜 하필이면 "똑바로" 운동이냐는 것입니다. 똑바로 운동을 시작했을 때 하고 많은 좋은 말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지나치게 강하고 직설적인 "똑바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느냐 하고 반문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똑바로"라는 표어를 내걸었는지 아시는 분계십니까?

한국평협은 지난해 초에 도덕성 회복운동을 하기로 하고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울 표현을 각 교구 평협을 통해서 또 교회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모집했습니다만 두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응모한 1300편의 제목을 보았는데 적당한 표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평협 도덕성회복추진소위원회에서 추가로 여론을 수렴한 끝에 "똑바로"라는 표어를 선정해 전국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표어로 "똑바로"를 정한 것이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말 "똑바로"가 나타내는 뜻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사전에 보면 똑바로란 첫째, 비뚤어짐이 없이 곧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바르다 올바르게다는 의미가 있고, 셋째로는 정직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성서적으로 풀이해 보면

첫째 똑바로 운동은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과 같은 일입니다. 마태오 복음 3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운동은 우리 사회의 굽은 부분들, 왜곡된 부분들을 곧게 하고 험한 골짜기를 평탄하게 고르게 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둘째 똑바로는 바른 길, 의로운 길을 가자는 운동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 잠언 14장2절에서는 바르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을 경외하지만 빗나가는 사람은 야훼를 업신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8장 18절에서는 바르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르게 사는 사람은 함정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똑바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자는 운동입니다. 집회서 40장 12절에서는 성실은 영원히 머무나 뇌물과 부정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잠언 16장 8절에서는 정직하게 살아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재산을 쌓는 것보다 낫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직과 성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 추기경님께서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외국에 나가실 때마다 우리 한인 교포들, 한인 신자들에게 늘 강조하신 것이 바로 정직과 성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바로 서지 못하고 사회 전체가 도덕적 불감증에 빠지는 것은 우리 민족이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정직과 성실이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최상의 덕목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똑바로 운동은 곧고 올바르게 그리고 정직하자 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똑바로 하자는 운동입니다. 이것이 똑바로 운동이 추구하는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주변에는 아직도 "똑바로"라는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똑바로라는 상대방에게 하는 강압적인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당신 이거 똑바로 해" 할 때 사용하는 말이고 또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경상도 말로 "니나 똑바로 해라"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요?

둘째는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똑바로" 하자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려니 "마음이 찢린다"이겁니다. 차량용 "똑바로" 스티커를 차 뒤쪽 유리 가운데에 붙이라고 했더니 현실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똑바로"를 붙이고 다니면 도저히 양심에 찢려서 안되겠다면서 안 붙이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스티커를 남이 보도록 붙이지 않고 운전석 앞쪽에 자신이 볼 수 있도록 붙여 놓은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만큼 우리의 양심이 아직도 살아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른 양심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이 똑바로 운동의 시작입니다.

**3. 끝으로 똑바로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똑바로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리플릿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동평협 여러 회장님들은 이미 매달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정해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족이 될 것 같아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안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틈만 나면 빨리 가려고 끼어들기를 하고 신호 위반을 하는 분이 똑바로 스티커를 붙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바뀌면 좋겠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하루에 신호 위반 10번을 한 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9번만 신호위반 합시다. 그래서 줄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루에 8번으로 줄입니다. 또 하루에 욕을 10번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은 9번만 하고 직성이 풀리도록 노력합시다. 다른 모든 일에서도 이렇게 하나씩만 나쁜 것을 줄어나간다면 똑바로 운동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똑바로 운동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합시다. 평협에서는 차량 스티커와 리플릿을 배포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차량용 스티커를 우리 신자들 차에는 무조건 붙여봅시다. 또 차에만 붙이지 말고 이왕이면 현관문에도, 자식들 방문에도 붙여봅시다. 여기저기에 똑바로가 자주 보이면 그만큼 생각도 자주하게 되고 행동도 달라질 것입니다.

셋째로, 짧은 화살기도를 자주 바칩시다. 똑바로 생각하게 해 달라고, 똑바로 말하게 해 달라고, 똑바로 행동할 힘을 주십사 하고, 화살기도를 바치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도 똑바로 하기가 잘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사실 우리가 똑바로 운동이 뭔지 몰라서 잘 안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똑바로 하려고 해도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잘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평신도 사도직과 똑바로 운동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평신도 사도직은 현실에서 탈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류와 영합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신도 사도직은 현실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고 보살피고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직자 수도자의 몫이 아니라 바로 우리 평신도들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우리네 삶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런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똑바로 운동을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 똑바로 운동과 국제사회--- 정동규 가브리엘(한국평협 교육분과위원장)

1990년도 초 중부유럽 어느 나라 주재 한국대사관에 부임한 박명석(가명) 서기관은 자기 아파트 출입구에 세워놓은 자신의 승용차가 없어진 것을 알고, 아파트 관리인에게 혹시 차를 도둑이 훔쳐간 것이 아닌지 물었더니, 관리인은 "당신 차는 경찰이 와서 견인해 갔다"고 알려 주었다.

박 서기관은 하도 기가 막혀 왜 주인의 허가도 없이 그리고 무엇을 위반했기에 경찰이 끌고 갔냐고 되 물었더니, 관리인은 "당신은 이곳 아파트에 이사 온 후로 근 1개월 반 동안 출입구에 주차를 해놓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20세대(장애자 포함)에게 불편을 크게 주었다"고 설명하면서 "이곳 교통규칙은 아파트 출입구에서 잠시 내리고 탈수는 있으나 주차는 못하게 되어 있다" 면서, "아파트 사람들은 당신이 외교관이고, 자동차 생산국가에서 부임하였기에 이제나저제나 당신 스스로 알고 잘 주차하기를 기다려 왔다가 더 이상 못 참은 주민의 신고로 견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국에서는 공간만 있으면 그곳이 출입구이든지, 남에게 불편을 주는 곳이든지 상관 않고 주차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던 그로서는 전연 뜻밖인 사건이었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남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거의, 절대라고 할만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배려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화합하며 살아간다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 몸에 배어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교 정신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유럽 50여 개국은 거의 그리스도교(가톨릭과 개신교) 국가로서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 되어있다.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방향표시(소위 '깜박이')를 해 주는 것도 교통규칙 이전에 뒤에서 따라오는 운전자에게 알려주어 속도를 줄이거나 다른 선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우리는 방향표시가 교통규칙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상할 정도로 운전 할 때 방향 표시를 잘해주지 않는 습관이 있어, 접촉 사고를 자주 내고 있다.

한국은 자동차가 국민 4명당 1대 꼴로 소유(99년) 하여 자랑스러우나, 불행하게도 OECD 국가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고 사망률도 1위 (1만대 당 한국 8.4명, 일본 1.2명)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은 해마다 연초 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무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로 생각하고 곧 잊어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집을 나서면 차 와 마주 칠 수밖에 없고, 생활화 되고있는 우리로서는 "똑바로 운전"으로 질서도 지키고 우리의 생명도 보호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선진국의 조소거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2000년도 여름 유럽에 성지순례를 간 국내 어느 본당 신자 일행은 낮에 여행을 마치고 그곳 식당에서 포도주를 한두 잔씩 마시기 시작했다. 취기가 오르자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술의 힘을 빌어, 옆에 앉은 그 나라 중년 내외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건네는 시늉을 하면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저녁을 즐기기 위해 식당에 온 중년 내외는 식당 분위기가 갑자기 소란스럽고 또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계속 접근해오는 동양인에게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 당황하다가 식당 주인을 부르더니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식당 밖으로 나갔다. 그 식당에 온 다른 손님도 식사를 마친 후 일행에게 불쾌한 눈치를 주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식당 주인이 이들 일행 가이드에게 "앞으로 우리 식당에서는 한국팀은 절대 사절하겠다"고 하는 말이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며 한국인

의 잘못된 식당문화 자세가 한국의 이미지를 추락 시켰는지를 알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도교 국가이므로 음식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여 식사 때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항상 정중하면서도, 명랑하게 식사하며, 고성방가는 금기로 되어 있다. 어린이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그 어린이가 조용하고 정중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의 식당문화를 살펴보자. 취기가 있게 되면 옆 사람이 있든 없든 고성방가가 관습화되어 있어 음식을 먹으로 왔는지 목청 돋구기 시합을 하러 왔는지,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어린아이를 동반한 부모는 그 어린이가 옆 사람의 어깨를 만지고, 방해하는 등 불쾌감을 주는 데도 꾸지람하는 법이 없는데, 부모는 어린아이 기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기를 살리기 전에 공중도덕을 먼저 지킬 수 있게 교육을 시켜 앞으로 선진국 진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똑바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위에 두 가지 사항은 우리나라에서 평소 습관화 되고있는 교통 및 음식 문화가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 지는가를 보여준 사례이다.

1987년도 늦은 봄, 필자가 핀란드에 출장 시 옆 좌석에는 주 한 핀란드 대사대리 모 씨 가 5년간 근무를 마치고 귀국 중인데, 공항에서 신고해야 할 소지품 양식지를 적고 있었다.

한국서 선물 받은 행운의 열쇠, 유명인 그림 몇 점과 귀 금석 등을 짝 차게 적고 있었다. (잘 신고치 않는 우리네 태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후 필자는 핀란드에서 근무하는 동안, 핀란드인들은 해외여행 시, 구입한 신고 물품은 세관에 속이거나 감추는 법 없이 반드시 신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더욱 신기한 것은 공항 관리는 핀란드인들의 여권을 상세히 보지 않고, 그냥 얼굴만 확인하고 공항 보세 구역을 나가게 하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어느 나라 공항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여권 및 짐을 조사하였다. 핀란드에서 수년간 근무하는 동안 핀란드인들은 우선 진실하고, 그 진실로 인해 서로가 믿고 있었고, 남을 속이거나, 더 나아가 사기치는 행위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대사 대리가 공항에서 신고하는 자세와 공항 관리가 핀란드인을 그냥 보세구역을 통과시키는 행위는 서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이 얼마나 부러운 일인가.

핀란드에 관해서 하나 더 소개하면, 1940-50년 냉전시대 당시 소련과 접경 하고있는 동유럽은 무력에 의해 모두 소련 위성국에 편입되었으나, 핀란드는 소련과 접경하고 있음에도 위성 국가가 되지 않았고, 민주체제 하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이는 핀란드가 NATO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중립 정책을 유지 할 것이라는 소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핀란드 국민은 소련에게 진실과 믿음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민의 진실성으로 인한 믿음과 신용이 국가를 구한 사례도 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남에게 배려는 고사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또 사기를 당하는 불신 풍조 속에서 살고 있으며, 정치, 경제도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국제 투명성 기구가(2000년도) 발표한 세계 각국의 "부패인식 지수" 순위를 보면 한국은 48위로 하위에 머물러 있고, 가장 깨끗한 나라로는 1위 핀란드, 2위 덴마크, 3위 뉴질랜드 및 스웨덴 순으로 되어 있

다.

신문이나 방송 등 매체를 통해 가끔 소개되는 주한 외국인이 보는 한국의 모습은 한결 같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법에는 교통 규칙뿐만 아니라, 모든 허가 사항과 과세 처분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힘있는 사람이나 유력 인사에게 부탁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어 여기서부터 부정부패는 짝이 트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수치(48위)에 대해 이 제는 우리도 관심을 갖고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만 하겠다.

또한 우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적당주의"를 배격해야만 한다.

독일 베를린에서 살고 있는 스테프겐(38세)씨 부부는 딸 알리나(6세) 양을 저녁 8시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대부분의 독일 어린이는 저녁 8시 전후하여 잠자리에 든다). 알리나 양은 늦게 자고 싶을 때에는 이유를 설명하여 부모를 이해시켜야 한다. 친구 집에 놀러갈 때에도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스테프겐씨는 "대충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확성을 손상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해 원칙을 중시하는 독일인의 품성이 어렸을 적부터 길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학기말에 때를 지어 관공서나 사회 봉사단체를 물려다니는 형식적 행사가 되고 있으며 "봉사정신 함양보다는 요령만 습득케"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어릴 적 몸에 밴 적당주의는 성인이 되어도 모든 것을 적당하게 처리하려고 할 것이며, 준법 정신의 해이로 나타난다.

우리는 적당주의에서 비롯된 안전 불감증이 엄청난 대가를 가져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난 1994년의 32명의 생명을 앗아간 성수대교 참사와 1995년의 502명이 숨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서울시가 그 뒤처리료 6,000여 억 원이 들었다고 발표했는데, 이 두 사건으로 추락한 국가 신뢰도는 돈으로 계산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이 적당주의는 국내적으로는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외부로는 국가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 사회는 IT, 초고속 통신 및 교통의 급속한 발달로 점점 좁아지고 있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과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살수 있는지를 나름대로 관찰하고 있을 것이다.

경제위기보다 또한 정치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너져버린 도덕성으로 서로가 믿지 못하는 사회이며, 이로 인한 적당주의와 질서외식 결여 등인데, "똑바로 운동"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서 외면당하여 경제위기는 물론 국가간의 정치 관계도 자연 소원해 질 것이다.

도덕성의 회복은 자연 진실이 수반되며, 진실이 그 사회를 지배할 때 경제는 활기를 찾고 또 지속 될 것이며, 정치도 지금과 같이 혼탁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국제 사회는 우리를 냉대하거나 우습게 보지 않을 것이다.

지난 6월 월드컵에서 보여준 우리 응원 문화에서 국제 사회는 붉은 악마의 빨간 T 셔츠가 아니라 질서 의식을 보았기 때문에 찬사를 보낸 것인데, 이 질서 의식은 깜작 쇼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 찬사는 7월 수출 신장이 19.9%로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전국평협의 "똑바로 운동"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에 절대 필요한 운동이며, 더욱이 선교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